



## 조심조심 또 **조심!**

# 불조심을 깨닫게 해준 10여 년 전 화재의 추억

글 최영숙 인천광역시

저는 12살 지윤이라는 예쁜 손주의 할머니 최영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이 다가온다 싶으면 매년 학교에서 불조심 포스터, 불조심 표어를 숙제로 내주곤 했습니다. 잘 해서 상을 타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머리를 짜 보아도 그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원망스럽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는 연탄불에 음식을 하고 방을 데우면서 혹시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지, 불이 붙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되었고 신기한 가스레인지로 쓰게 되면서는 외출했다가 '가스 불을 끄고 나왔다?' 하는 불안에 휩싸여 약속 장소로 가지 못하고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오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나에게 불이란 조심하면 될 뿐, 어떤 화재나 긴급 상황이 나에게 들이닥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하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재에 대해 자만하고 방심했던 제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 1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 이었고 205호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저는 외출했고, 제 딸은 대학졸업반이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호 아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201호의 가족들은 모두 놀라 '불이야' 를 외

치며 복도를 뛰어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딸의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에 놀라 창밖을 보니 빨간 불길의 창밖으로 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대문을 살짝 열어 보았는데 도저히 뛰어 나갈 엄두는 나지 않고,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되어서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가거나 도망가는 것 보다는 ‘집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어떻게 불이 저 벽을 뚫고 들어오겠어.’하는 생각을 하며 대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불이 난 후 몇 분이 지나서야 생각이 났었다고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저는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201호와 그 복도를 향해서 물을 쏟아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었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게다가 ‘집에 딸이 혼자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자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스라쳤습니다. 몰려 있는 사람들을 제치며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들려는 저를 소방관들이 안 된다고 막아섰습니다. 저는 “집안에 딸이 혼자 있어요.”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금세 잡혀 소방관들이 딸아이를 구조해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대문 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보면서도 ‘머잖아 꺼지겠지.’ ‘그럼 괜찮아지겠지.’하며 안방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평소에 불조심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교

육을 받았어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우왕좌왕하다가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ですよ. 그래서 저는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을 때문에 크게 써 붙여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화재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 보다는 같은 자리에 늘 있던 메모를 보면서 즉시 따라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대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 [불이 나면]

1. 119 에 전화한다.
2. “불이야” 소리 지른다.
3.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밖으로 뚫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사골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그냥 외출했다가 집안을 온통 사골 탄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든 후 우리 집 대문 안쪽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더 붙게 되었습니다.

#### [신발 신기 전]

1.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갔나?
2. 다리미 코드는 뽑았나?

저는 대문을 열 때마다 이 잔소리 덕분에 외출 중에도 마음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친구 만나러 가다가 지나가는 소방차 소리에 ‘앗... 혹시 우리 집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대문에 써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

